

실험미술 거장 이강소의 컬러 회화



이강소, 청명-20018, 2020, Acrylic on canvas, 112 x 145.5cm

이강소(78) 작가를 설명할 때 실험미술이 빠지지 않는다. 국내 실험 미술 최전선에 섰던 그는 1970년대 미술 연구 모임 ‘신체제’, ‘아방가 르드(AG) 그룹’, 서울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 등을 통해 현대 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작가는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비디오, 설치 작품 등을 선보였다. 사진, 판화, 조각까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했다. 캔버스 천의 실밥을 한 올씩 뽑거나 찢고, 자신의 몸에 물감을 칠하고 캔버스용 천에 담아낸 뒤 바닥에 펼치는 등 회 화도 그에게는 실험 대상이었다.

그가 물감과 붓을 사용한 그림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뉴욕주립대에 객원 미술가로 머물던 1985년이다. 제작 방식은 1970 년대와 차이가 있지만, 이강소 특유의 실험성은 여전했다. “습관적 인 붓질에서 벗어나고자 계속 노력했다”고 그는 지난 회화 작업을 돌아봤다.

이강소 개인전 ‘몽유’는 작가가 1990년대 말부터 올해까지 완성한 회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화가’ 이강소에 집중한 전시다. 빠른 붓 놀림으로 굵은 선을 표현한 ‘청명’과 ‘강에서’ 연작부터 그의 트레이 드 마크가 된 오리 모양 등이 나타나는 작업까지 다채롭다.

‘꿈속에서 논다’라는 뜻의 전시 제목 ‘몽유’는 작가의 세계관을 나 타낸다. 그는 이 세계가 실제로는 꿈과 같다고 해석한다. 우리가 보 는 세계가 실재인가를 물으며, 작품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강소는 “내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써지고 그려지 는 그림”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붓질이 작품을 완성 한다는 의미다.



이강소, 청명-17122, 2017, Acrylic on canvas, 117 x 91cm

그는 “눈에 보인다고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 각자 기억 과 경험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며 “작가 역시 그림을 그리는 순 간마다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부터 평면 회화 작업을 했는데 쉽지 않아 마구잡이로 그려보는 모험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새로운 방법을 구현하고자 나름대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회색과 흑색 선, 흰 캔버스가 어우러지는 모노톤 회화 작업으로 이 강소는 단색 화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붉은색 과 노란색 등 강렬한 색채로 화면을 채운 신작을 내놓아 단색화가 군과는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컬러 작업에 대해 그는 “20년 전 사둔 아크릴물감을 꺼내 칠해보니 색이 너무 아름다웠다”며 “색이 나를 유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기,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단색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나를 유혹하는 색채를 찾 아 충분히 색을 사용하는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일정(장소) 8월 1일까지(현대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2287-3500

호주 원주민 출신 미술가가 그린 ‘보물섬’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은 1770년 인데버호를 타고 호주에 도착했다.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호주에 발을 디딘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호주 곳곳에 그의 동상이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 제임스 쿡의 호주 상륙은 ‘발견’이 아니라 ‘침략’이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지금도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종종 쿡 선장의 동상이 훼손되기도 한다.

시드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니엘 보이드(39)는 호주 원주민 출신 현대미술 작가다. “나의 작품은 모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찰,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선조들의 존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그의 작업에서 호주의 역사, 가족과 조상의 등장은 당연히 보인다. 작가는 그동안 호주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한 기존 낭만주의적 개념을 경계하고 의심해왔다. 다니엘 보이드 개인전 ‘보물섬’은 서구의 일방적 역사관과는 다른 시선을 담은 회화와 영상 등 25점을 선보인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겸 시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은 다니엘 보이드의 초기 작업부터 등장했다. 작가는 호주 식민지 역사의 영웅 제임스 쿡 선장과 조지프 뱅크스 경을 해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는 소설에 언급된 보물섬 지도를 그린 작품, 스티븐슨 초상을 담은 작품 등을 선보인다. 스티븐슨이 사용했던 화려한 색상의 접시를 재구성한 회화도 있다. 보이드는 영화 ‘바운티호의 반란’의 포스터 이미지를 담은 작품 등을 통해 역사와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서구 중심적 관점으로 정형화된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신작 회화에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탐사에 참여한 작가의 증조부, 전통춤 공연을 준비 중인 친누나의 모습을 재현했다. 소설 ‘보물섬’, 영화 ‘바운티호의 반란’,

작가의 가족 등을 다룬 작품들은 서로 무관한 듯하지만, 뿌리와 역사에 대한 작가의 관심 아래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

다니엘 보이드의 회화에서 캔버스는 색약 테스트 화면처럼 작은 원형 점들로 구성됐다. 풀로 점을 찍고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는 그림 속 점에 대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라고 설명한다. 점 하나로는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작품에서 떨어져야 비로소 점들이 이루는 형상이 보인다.

전시일정(장소) 8월 1일까지(국제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735-8449



다니엘 보이드 'Untitled (FFITFFF)'



DNA 산수_거울, 다중채널 비디오, 사운드, 가변크기, 12분 24초, 2021

DNA 데이터로 재해석한 디지털 산수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52)은 고전 회화를 재해석한 디지털 작품으로 유명하다. 현대적 감각으로 강한 시각적 자극을 주는 미디어아트와 달리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등을 영상으로 옮겼다. 독특한 주제와 기법으로 2019년 영국 테이트 모던 백남준 회고전, 2020년 브뤼셀 한국대사관 등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개인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다’에서 이이남은 그동안 소재였던 고전 회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뿌리와 본질을 탐구한 작품을 보여준다. 그동안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울대 생명과학연구소와 함께 추출한 자신의 DNA 정보를 작품에 담았다. 작가의 DNA 염기서열을 구성한 작은 알파벳들이 화면에 눈이 내리듯 떠다니다가 쌓여 고전 산수화가 그려지는 식이다.

모니터 영상 작품 15점과 영상을 활용한 설치 작품 6점 등 총 21점이 전시됐다. 주제는 당나라 시인 사공도(司空圖)의 시학서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에서 가져왔다. 이십사시품 중 온전한 자신을 보고 싶은 욕망을 투영한 구절 “형상 밖으로 훌쩍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손을 진다”에서 영감을 얻은 이이남은 DNA 데이터로 디지털 회화를 만들었다.

DNA와 고전 회화의 만남처럼 작품 곳곳에서 실상과 허상,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만나는 ‘시(時)’가 된 폭포는 6.8m 높이의 영상 스크린으로 폭포를 형상화했다. 수많은 역사를 기록한 문자들이 물방울처럼 쏟아져 내린다. ‘분열하는 인류’는 스크린을 관통한 화살이 열매 실(實) 자를 붙잡고 있는 듯하다. 글자 아랫부분이 가루처럼 흩어져 내린다.

전시일정(장소) 8월 31일까지(사비나미술관)

관람료 성인 5천원, 어린이·청소년 3천원

☎ 02-736-4371

여성 감독들이 담은 10대 소녀와 집, 그리고 가족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 ‘흠어진 밤’·‘열아홉’

아직은 어린애를 벗어나지 못한 10살과 곧 성인이 되는 19살 소녀, 그리고 그들의 위태로운 집과 가족의 이야기를 감정의 과잉 없이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 두 편이 잇달아 개봉한다.

영화 ‘흠어진 밤’과 ‘열아홉’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가족 안에서 상처 주고 멀어지지만 끊어낼 수도 없는 관계를 10대 소녀들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두 편 모두 젊은 여성 감독들의 데뷔작이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작품들이다.

흠어진 밤



감독 김술·이지형
출연 문승아, 최준우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6월 24일

먼저 개봉하는 ‘흠어진 밤’은 이혼을 앞둔 가족의 이야기다. 스타 영어 강사인 엄마와 박물관 학예사인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고, 이미 따로 나가 사는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불까말까다. 중학생인 오빠 진호(최준우)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공부에 집중한다. 막내인 10살 수민은 넷이 그대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왜 엄마가 빠가 다시 친해질 수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누구와 같이 살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민이는 중학생이 되어 야 배우는 경우의 수에 흠어져야 하는 가족들을 대입해 본다. 수민 역으로 2019년 전주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은 문승아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은 연기로 연극무대와 독립영화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성인 연기자들을 압도한다.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동기인 김술·이지형 감독은 데뷔작인 이 작품으로 당시 전주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받았다.

열아홉



감독 우경희
출연 손영주, 정태성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6월 30일

올해 전주영화제 경쟁작이었던 ‘열아홉’은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가 떠나고 아픈 엄마와 살던 19살 소정의 이야기다. 엄마마저 사라지면 혼자 음악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날, 집에 돌아온 소정(손영주)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는 엄마를 마주한다. 아빠와 살게 될까 봐, 아파트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소정은 옥조에 엄마를 숨긴 채 위태로운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끔찍한 비밀을 품은 낡고 좁은 임대 아파트는 회색빛이지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 현장실습으로 나간 공장에서 만난 성현(정태성)과 음악을 통해 가까워질 때 소정은 다채로운 빛깔의 꿈을 꾸다. 소정의 홀로서기는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지만, 서로 닮아 가까워진 성현이 찾아오며 흔들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우경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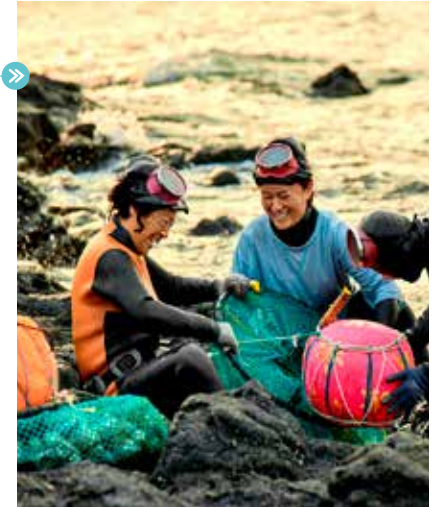
빛나는 순간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숲에서 70대 해녀와 30대 다큐멘터리 PD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온기를 나누는 특별한 로맨스를 그렸다.

물질도, 성질도 제주도에서 제일가는 해녀 진옥(고두심). 냉담하기만 한 진옥을 설득해야 하는 경훈(지현우)은 진옥의 주위를 맴돌다 바다에 빠진다. 자신을 구해준 진옥에게 보답을 하겠다며 매니저를 자처한 경훈은 진옥의 뒤를 따라다니며 일을 한다.

진옥은 손자뻘인 경훈을 향해 생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품지만 당혹스러움을 애써 감추고 촬영에 응하고, 카메라 앞에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낸다.

감독 소준문
출연 고두심, 지현우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6월 30일



블랙 위도우

마블 스튜디오의 올해 첫 액션 블록버스터이자, ‘어벤져스’ 군단에서 강력한 전투 능력과 명민한 전략을 겸비한 히어로 블랙 위도우를 주인공으로 한 첫 단독 영화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부터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사이의 알려지지 않은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블랙 위도우 니타샤 로마노프(스칼릿 조핸슨)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레드룸의 음모와 실체를 깨닫고 목숨을 건 반격을 시작하며 스파이로 활약했던 자신의 과거와 어벤져스가 되기 전 함께했던 동료들을 마주한다.

이번 작품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엘레나 벨로바(플로렌스 퓨), 멜리나 보스토코프(레이철 와이즈), 레드 가디언(데이비드 하버)이 레드룸의 음모에 맞서는 블랙 위도우와 함께 활약한다.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
출연 스칼릿 조핸슨, 플로렌스 퓨, 레이철 와이즈, 데이비드 하버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7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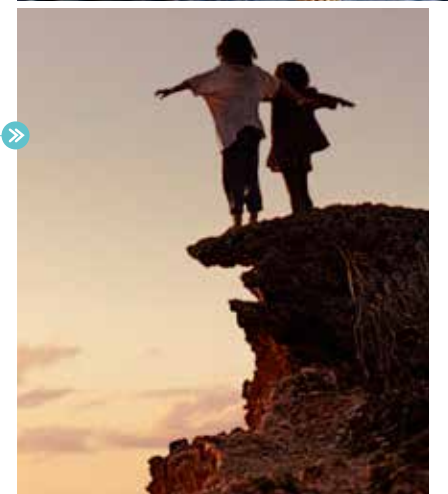
웬디

장편 영화 데뷔작인 ‘비스트’(2012)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카메라상(신인감독상)과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후보에 오르며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했던 벤 자이틀린 감독이 9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전 세계에 알려진 피터 팬의 이야기를 웬디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화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소녀 웬디가 어른이 되길 거부하는 소년 피터를 만나 나이 들지 않는 신비로운 섬에 표류하면서 겪는 모험과 성장을 담았다.

아름다운 원시의 자연, 자연과 공감하는 아이들, 교묘하게 뒤섞인 판타지와 리얼리즘이 두 작품을 모두 관통한다.

감독 벤 자이틀린
출연 데빈 프랑스, 아슈아 막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6월 30일



인 더 하이스

한여름의 뜨거운 에너지를 뽐내내는 뮤지컬 영화. 2008년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이후 10여년 동안 흥행하며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 그래미상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 등을 거머쥔 동명의 뮤지컬이 원작이다.

미국 뉴욕의 ‘라틴 할렘’이라고 불리는 이민자들의 동네 워싱턴하이스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고향인

감독 존 추
출연 앤서니 라모스, 멜리사 바레라, 코리 호킨스, 레슬리 그레이스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6월 30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는 청년 우스나비(앤서니 라모스)와 이웃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42분에 달하는 상영시간 내내 힙합, 살사, 바차타, R&B, 팝 등 다채로운 음악과 흥겹고 관능적인 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나훈아



‘가황’ 나훈아가 대구·부산·서울 3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을 취소했지만,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하며 다시 공연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나훈아 측은 “힘들고 답답한 세상 어렵게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며 “평범한 일상마저 가두어 버린 세상, 요놈의 코로나19를 먹살이라도 비틀어 답답한 세상에 희망가를 소리쳐 부를까 한다”고 전했다.

나훈아는 지난해 추석 연휴 KBS 2TV로 방송된 비대면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어 부산·서울·대구에서 연말 공연을 열어 직접 관객을 만날 예정이었다. 당시 젊은 층까지 뛰어든 ‘예매 전쟁’이 벌어지며 부산과 대구는 8분, 서울은 9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68년 데뷔한 나훈아는 수십년 동안 ‘가황’ 수식어를 지키며 국내 최고의 가수로 군림했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서 라이벌인 남진과 함께 한 시대를 양분했다.

‘껌기’가 트레이드 마크인 뛰어난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작사·작곡 능력까지 갖춘 싱어송라이터다. 지금까지 약 800곡의 자작곡을 포함해 총 2천600곡을 발표했다. 히트곡만 100곡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울긴 왜 울어’, ‘사랑’, ‘잡초’, ‘무시로’, ‘흥시’, ‘사랑은 눈물의 씨앗’, ‘고장난 벽시계’, ‘청춘을 돌려다오’ 등이 특히 유명하다. 지난해 발표한 앨범에서도 ‘테스형!’, ‘멍자!’ 등을 히트시켰다. 음악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면모를 보인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손짓, 때에 따라 안무를 가미해 ‘나훈아 표’ 공연을 완성한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에서도 일흔을 넘긴 나이에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며 화제가 됐다.

공연일정(장소) 7월 16~18일(대구 엑스코 동관), 7월 23~25일(부산 벡스코), 8월 27~29일(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관람료 미정
☎ 1544-6399

박혜원(HYNN)



가수 박혜원의 ‘헬 고음’을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 박혜원은 지난해 겨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전석을 매진시키며 신인 가수로는 이례적인 반응을 얻었다. 2018년 싱글 ‘렛 미 아웃’으로 데뷔한 박혜원은 이듬해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역주행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싸있어’, ‘아무렇지 않게, 안녕’ 등을 발표했다. 탄탄한 가창력과 안정적인 고음이 특징인 그는 MBC TV 예능 ‘복면가왕’에 출연해 최연소 가왕이 되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7월 17일(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관람료 미정
☎ 1544-1555

우주소녀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아이돌의 현장 콘서트가 열린다. 걸그룹 우주소녀는 팬 파티 ‘WELCOME TO 우소家’(웰컴 투 우소가)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유니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모한 팬 350명만을 초대한다. 우주소녀는 2016년 데뷔한 13인조 한중 합작 그룹이다. 신비롭고 독특한 세계관으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팬층을 넓혔다. 리더 역시는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나 우주소녀의 곡 작업에 활발히 참여한다. 대표곡으로 ‘이루리’, ‘버터플라이’, ‘너에게 닿기를’, ‘부탁해’ 등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7월 10일(서울 예스24 라이브홀)
티켓 응모권 9천900원

골든차일드



보이그룹 골든차일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콘서트를 연다.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해 하루 700명씩의 관객을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양일간 세트리스트를 다르게 구성하며 팬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 데뷔한 골든차일드는 올림피아드인먼트에서 인피니트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보이그룹이다. 뛰어난 퍼포먼스 실력으로 팬덤을 키운 이들은 지난해 엠넷 보이그룹 경연 프로그램 ‘로드 투 킹덤’에 출연하며 팬층을 넓혔다. 대표곡으로 ‘펌프 잇 업’(Pump It Up), ‘너라고’, ‘담다디’, ‘워너비’ 등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7월 17~18일(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
관람료 1만원
☎ 1544-1555

강혜연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에 나오며 트로트 가수로 새 출발을 알린 걸그룹 베스티 출신 강혜연이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펼친다. 그는 2012년 걸그룹 EXID 초기 멤버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베스티의 멤버로 재데뷔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베스티 시절에도 트로트 앨범을 내려는 계획이 있었고 곡도 준비했지만, 회사 재정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트로트 가수로 다시 한번 데뷔하며 방송가를 누볐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방영한 ‘미스트롯 2’를 통해 전성기를 맞았다. 대표곡으로 ‘왔다야’, ‘남자는 바보야’ 등이 있으며 ‘막걸리 한잔’, ‘섬마을 선생님’ 등 다른 가수 곡의 커버 무대도 유명하다.

공연일정(장소) 7월 18일(세종대학교 대양홀)
관람료 9만9천~12만1천원
☎ 02-3408-4458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화려한 귀환



진실과 정의의 의미를 묵직하게 전하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세 번째 시즌의 막을 올린다. 작품은 18세기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와 사회 부조리에 맞서 혁명을 선도하는 허구의 인물 마그리트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린다.

풍성한 주름 장식과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18세기 파리 귀부인들의 드레스와 360도 회전하는 무대 등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다. 뮤지컬 ‘엘리자벳’, ‘레베카’, ‘모차르트’ 등에서 호흡을 맞춘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작품 제작에 참여했으며, 2014년 초연 때는 음악과 무대, 의상, 안무를 한국 관객 정서에 맞게 수정해 무대에 올렸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누렸지만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추락하는 마리 앙투아네트 역에는 김소현과 김소향이 캐스팅됐다. 프랑

스 빈민들을 선동하고 혁명을 이끄는 인물인 마그리트 아르노 역으로는 김연지와 정유지가 출연한다.

매력적이고 용감한 스웨덴 귀족이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하는 악셀 폰 페르젠 백작 역은 민우혁, 이석훈, 이창섭(비투비), 도영(NCT)이 번갈아 맡는다. 프랑스 왕실을 차지하려는 야욕가 오를레앙 공작 역으로는 민영기, 김준현이 출연하고,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 역에는 이한밀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구인 마담 랑발 역에는 박혜미가 캐스팅됐다.

공연일정(장소) 7월 13일~10월 3일(샤롯데씨어터)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 1899-6336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창작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여섯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괴로워하며 시 쓰기와 절필을 반복했던 윤동주가 남긴 시와 치열했던 청춘의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2012년 초연했다.

공연에서는 윤동주의 시를 가사로 만들어 노래하는 대신 대사에 고스란히 담아내 고유의 서정성을 살려낸다. ‘팔복’, ‘십자가’, ‘참회록’, ‘서시’, ‘별 헤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대표 시 8편이 독백과 대사로 전달되며 관객에게 여운을 준다.

원년 멤버인 박영수, 김도빈, 조풍래가 각각 윤동주, 송몽규, 강처중 역으로 출연해 다시 합을 맞춘다. 또 창작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에서 고종 역을 맡았던 서울예술단 김용한이 새로 윤동주를 연기한다. 윤동주의 친구 강처중 역에는 서울예술단 이기완이 조풍래와 함께 더블 캐스팅됐다. 윤동주가 시를 쓸 수 있게 하는 가상의 인물 이선화 역은 송문선과 이혜수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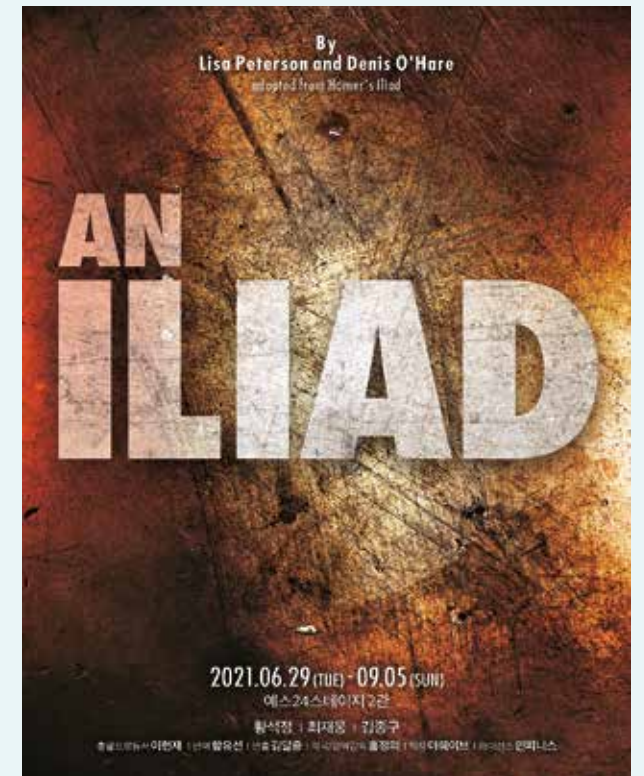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7월 10~25일(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 02-580-1300, 1544-1555

황석정·최재웅·김종구 1인극 ‘일리아드’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시 ‘일리아스’를 바탕으로 한 연극 ‘일리아드’가 초연한다. 작품은 미국 연출가인 리사 피터슨, 무대와 TV 프로그램 등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데니스 오헤어에 의해 희곡으로 탄생했다. 2010년 시애틀 레퍼토리씨어터에서 처음 선보인 후 8개국 17개 도시에서 상연됐다.

‘일리아드’는 10년에 걸친 트로이전쟁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다. 아킬레스와 헥토르 등 전사들과 그리스 신화 속 신들, 전쟁으로 목숨과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명의 내레이터 역 배우에 의해 전개된다. 내레이터는 시간과 공간이 혼재된 무대에서 때로는 전쟁의 주역, 때로는 전쟁의 증인이나 희생자가 되어 신과 영웅의 이야기, 전장을 적나라하게 그린다. 개성 있는 연출력과 대중성을 갖춘 김달중이 연출을 맡았다. 내레이터 역은 배우 황석정·최재웅·김종구가 캐스팅돼 각기 다른 캐릭터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9월 5일까지(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2관)
관람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 02-6954-0772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꾸미는 8번의 무대 라흐마니노프·하이든·베토벤·스트라빈스키



마르쿠스 슈텐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관현악과 실내악 등 여덟 차례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서울시향의 수석 객원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는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를 주제로 열리는 총 다섯 번의 정기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와 하이든, 베토벤, 스트라빈스키 등의 곡을 연주한다.

슈텐츠는 첫 관현악 공연(7월 2~3일)에서 버르토크의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을 선보인다. 버르토크의 이 곡엔 하프까지 포함된 현악기 파드와 여러 타악기가 등장하며, 비제의 모음곡은 오페라 ‘카르멘’의 관현악 버전을 축소한 것이다.

오페라 지휘자로 데뷔했고,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등에서 활동하는 슈텐츠는 하이든 교향곡(9일) 연주 무대에도 오른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서곡으로 시작해 스트라빈스키의 ‘카드놀이’,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과 100번 ‘군대’를 연주한다.

하이든의 ‘고별’은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치 궁에 고용되었을 때 작곡한 곡으로 에스테르하치 후작이 붙잡아 두는 통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단원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1794년 런던에서 초연된 ‘군대’는 하이든의 교향곡 작품 중 가장 원숙하고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슈텐츠의 마지막 무대(15~16일) 주제는 지난해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이다. 서울시향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과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도,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전주곡을 연주한다.

특히 이 무대에선 2017년 10월 한 차례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춘 영국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한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하일리겐슈타트 요양 중 유서를 작성한 이듬해에 완성했으며, 성숙기에 접어든 베토벤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허프는 슈텐츠의 첫 관현악 공연(2~3일)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대한 랩소디’도 협연한다.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와 재치, 유머가 돋보이는 곡으로, 1934년 볼티모어에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초연했다.

허프는 ‘디아파중 도르’, ‘그라모폰 어워드’의 ‘올해의 음반’과 ‘골드디스크’를 포함해 8개 부분의 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권위의 음반상을 수상했고, 미국 맥아더 재단이 수여하는 맥아더 펠로우십을 받은 첫 클래식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는 에세이 작가로도 활동한다.

서울시향과 첫 무대를 갖는 미국 지휘자 조너선 스톡해머는 스트라빈스키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공연(22~23일) 포디엄에 오른다. 스톡해머는 오페라와 교향악, 현대음악 등을 두루 연주하는 지휘자로 오슬로 필하모니, 엘프필하모니,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체코 필하모니 등을 지휘했다.

서울시향은 스톡해머의 지휘로 베토벤의 ‘교향곡 8번’, 스트라빈스키의 ‘아곤’과 ‘베노사의 제수알도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베베른이 편곡한 바흐의 ‘음악의 헌정’을 연주한다.

스톡해머는 스트라빈스키의 두 작품에 대해 “오랜 연륜이 쌓인 노(老) 작곡가가 남긴,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정서와 감동을 노리는 음악”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시향 부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 등 현악 연주자 8명은 ‘낮과 밤’을 주제로 한 실내악 무대(10일)에도 오른다. 웨인 린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한지연·최해성, 비올리스트 대일 김·성민경, 첼리스트 김소연·반현정·장소희 등이 참여한다.

이들 연주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일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 중 전주곡,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등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일정(장소) 7월 2~3일(예술의전당),
7월 9일(롯데콘서트홀), 7월 10일(세종체임버홀),
7월 15~16일(롯데콘서트홀), 7월 22~23일(롯데콘서트홀)
관람료 1만~7만원
☎ 1588-1210

국내외 활동 무용수가 꾸미는 갈라 공연 ‘발레 스타즈’

국내외 주요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이 유명 발레 작품의 주요 장면을 엮어 꾸미는 갈라 공연 ‘발레 스타즈’(Ballet Stars)가 열린다.

방송인 오정은은 도슨트로서 해설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레 명장면들로 이뤄지며, 이고은 예술감독 겸 안무감독이 총괄하고 안무가 유장일이 연출한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체코, 헝가리 등 해외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무용수들이 참여한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리화·이재우는 ‘스파르타쿠스’ 중 ‘파드되’(2인무), 신승원·허서명은 ‘사타넬라’ 중 ‘그랑 파드되’를 선보인다.

미국 보스턴 발레단 이상민·김석주·이선우,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 스튜디오 컴퍼니 박선미, 애틀랜타 발레단 이소정, 체코 브르노 국립발레단 출신 윤별, 헝가리 국립발레단 출신 김민정,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 발레단 출신 박소연, 국립발레단 엄진술은 ‘탈리스만’과 ‘에스메랄다’, ‘파키타’, ‘백조의 호수’ 중 ‘그랑 파드되’ 등으로 호흡을 맞춘다. 이 밖에 15명 남짓 무용수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음악에 따른 ‘행진’, ‘돈키호테’, ‘파키타’의 ‘코다’ 부분 음악에 맞춰 동작을 선보이는 커튼콜 무대도 예정돼 있다.

‘해적’ 2막 중 ‘파드 트루아’(3인무)를 비교해 감상할 수도 있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손유희·이현준·콘스탄틴 노보셀로프는 성남아트센터,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예은과 솔리스트 하지석은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각각 오른다.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발레를 전공한 오정은은 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설명을 곁들인다. 그는 평소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열렬히 사랑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발레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7월 11일(성남아트센터), 7월 14일(경기아트센터)
관람료 2만~4만원
☎ 031-783-8000(성남아트센터) 031-230-3200(경기아트센터)



공연일정(장소) 7월 16일(노원문화예술회관),
7월 17일(광주문화예술회관), 7월 21일(예술의전당)
관람료 4만~8만원
☎ 02-318-4301

첼리스트 홍진호 리사이틀 ‘첼로탄츠’

첼리스트 홍진호가 세련되고 강렬한 춤곡을 바탕으로 하는 리사이틀 ‘첼로탄츠’를 연다. 리사이틀 주제 속 ‘탄츠’는 독일어로 춤을 뜻하는데, 홍진호는 이번 무대에서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음색이라는 첼로의 보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화려한 음색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

그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버르토크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 라벨의 ‘볼레로’ 등 춤곡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과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 바흐’, 부르크뮐러의 ‘첼로와 기타를 위한 3개의 야상곡’ 등 민속적인 색채와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들을 연주한다.

이 곡들은 절묘한 앙상블이 중요한 만큼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와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현악사중주단 스트링 콰르텟(바이올리니스트 안세훈·송태진, 비올리스트 조재현, 첼리스트 윤석우)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홍진호는 서울예고, 서울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JTBC 오디션 ‘슈퍼밴드’에 밴드 ‘호피폴라’ 멤버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호피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다.

그는 클래식 음악 연주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무대를 통해 첼로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여름 음악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대중들과 편안하게 호흡하기 위해 재즈와 팝, 탱고 등 장르의 작품을 연주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책과 음악을 소개하는 북 콘서트인 ‘진호의 책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소리꾼 이희문과 기타리스트 김영소, 카운터테너 최성훈, 싱어송라이터 이진아·하림 등이 참여했다.

홍진호는 이번 리사이틀을 앞두고 지난해 공연 실황과 라벨, 브람스의 곡을 녹음한 새 앨범도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발매한다.



고독사를 소재로 외로움과 인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풀어나간 소설 주인공 앤드루는 가족 없이 혼자 살다 연고도 없이 죽은 이들의 장례를 공중보건법에 따라 치러 주고 각종 행정 절차도 대신 처리하는 직업을 가졌다. 첫 면접 자리에서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아내와 자녀 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그는 무심코 내뱉은 거짓을 바로잡지 못해 5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속인다. 그 결과 거짓으로 범벅된 그의 삶은 점점 외로워지지만 한다. 언젠가 고독사가 자신의 일이 되리라는 두려움에 떠는 앤드루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어야 하는 요절복통의 위기다. 시니컬한 유머러스함으로 설 새 없이 웃음이 터지다가 후반부에는 진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소설이다.

리처드 로퍼 지음/진영인 옮김/
민음사 펴냄/1만7천원/488쪽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등. 발효식품은 우리 식단의 맛을 좌우한다 싶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용한 미생물의 작용 덕분에 보존하기 쉽고 맛과 향도 독특할 뿐 아니라 음식의 소화 또한 잘 된다. 발효는 세계의 식단에 공통으로 등장한다. 묘약처럼 신비한 발효음식의 힘이 인류사를 이끌어온 견인차 구실을 했다. 미국의 발효 전문가가 펴낸 이 책은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발효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운 발효의 바이블이다. 사워크라우트나 요구르트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부터 고차원의 발효법까지 세세히 일러준다. 다양한 채소, 술, 탄산음료, 우유, 맥주, 콩, 물고기, 육고기 등의 발효과정과 기법, 곰팡이 배양과정은 물론 농업과 예술, 에너지 생산과 상거래에서 발효가 차지하는 위상까지 두루 기술해나간다.

샌더 엘릭스 카츠 지음/한유선 옮김/
글항아리 펴냄/936쪽/4만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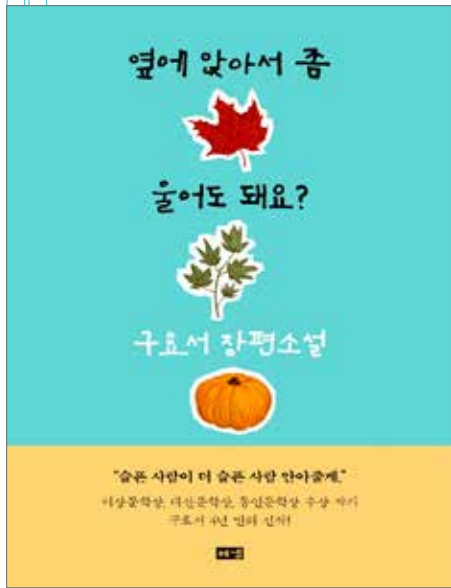
현존하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1716년산 스트라디바리 ‘메시아’로 알려져 있다. 비 공식적으로 2천만달러(약 224억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아는 17년간 진품 논란에 휘말렸지만, 나이트로 인해 진품을 확인받았다. 벨기에 출신 연륜연대학자이자 미국 애리조나대 나이트연구소 교수인 저자는 20년간 연구 내용을 토대로 나무와 나이트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다. 연륜연대학은 나이트를 이용해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고 기후가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학문이다. 저자는 나이트를 이용해 캘리포니아 산불의 역사를 되짚고, 가뭄과 허리케인 등 극한의 날씨와 기후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스위스 산소나무의 나이트를 이용해 지난 수 세기의 기후를 재구성하고, 2016년엔 그리스의 핀두스산맥에서 수령 1천75년으로 추정되는 ‘아도니스’란 이름의 나무를 발견하기도 한다.

발레리 트루에 지음/조은영 옮김/
부키 펴냄/1만8천원/340쪽



이탈리아 북부 도시 볼로냐는 ‘미식의 수도’, ‘똥보의 도시’, ‘붉은 도시’, ‘현자의 도시’ 등의 별명을 갖고 있다. 볼로냐에서 요리 유학을 했던 저자는 그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고, 볼로냐를 소개하는 책을 펴내게 됐다. 처음에는 풍성한 음식의 맛에,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시의 개방성에 매력을 느꼈던 저자는 맛의 기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인문주의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말한다. 책은 미식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게 한 햄과 토마토, 치즈, 와인, 커피 등 볼로냐의 음식들을 상세히 전한다. 이어 붉은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한 도시를 뒤덮은 긴 회랑, 현자의 도시로 알려지게 된 근대 법과 의학의 성과 등을 살펴 가면서 인문학 기행으로 이끈다.

권은중 지음/메디치 펴냄/
320쪽/1만8천원



현재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구호서의 신작 장편소설, ‘옆에 앉아서 좀 물어도 돼요?’가 제목이고, 부제는 ‘파드득나물밥과 도라지꽃’이다. 제목만큼이나 소설 내용과 분위기도 푸근한 ‘힐링 송’ 같다. 강원도 평창 산골의 한 펜션이 무대다. 주인공은 펜션 ‘애비로드’를 운영하는 경난주와 그의 여섯 살짜리 딸 유리. 난주는 ‘돼지고기활활두루치기’ 같은 독창적 음식으로 손님들의 육체적 허기는 물론 마음의 허전함까지 달래주는 재주가 있다. 이 근처에 살려고 땅을 사놓은 단골손님 서령과 이룩 부부와 미국에서 온 노부부가 애비로드를 찾아오면서 잔잔하지만 묘한 비밀 이야기가 펼쳐진다. 골치 아픈 일상을 탈출해 이곳을 찾아온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읽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구호서 지음/해냄출판사 펴냄/
1만4천500원/228쪽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조지 손더스의 우화 같은 소설. 인간의 언어를 어껴내며 배운 여우가 인간들에게 쓴 편지 형식을 띤 짧은 작품이다. 인간에게 숲을 빼앗기고 동료 여우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본 주인공 ‘여우 8’이 가장 친한 친구 ‘여우 7’과 함께 소꿉물레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를 통해 인간의 환경 파괴와 탐욕스러운 소비가 야기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여우 8’이 철자가 맞지 않는 단어들로 인간에게 전하는 충고가 예사롭지 않다. “당신들의 얘기가 행복하게 끝나기를 원한다면 좀 차게지려고 노력하세요.” 손더스는 맨부커상 수상작 ‘바르도의 링컨’을 비롯해 소설집 ‘12월 10일’, ‘악화 일로를 걷는 내전의 땅’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현재 시러큐스대 문예창작학 교수로 일한다.

조지 손더스 지음/민은영 옮김/
문학동네 펴냄/1만원/64쪽